

#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 — 멜란히톤의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 개편을 중심으로 —

박 준 철

- |                          |                               |
|--------------------------|-------------------------------|
| I. 기존의 연구동향과 그 한계점       | 2. 'Locī' 교수법                 |
| II. 멜란히톤의 성직자 교육관        | III. 理想의 具現: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 개편 |
| 1.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와 성직자 교육 | IV. 결 론                       |

### I. 기존의 연구동향과 그 한계점

본 연구<sup>1)</sup>는 유럽사회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나타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를 새로이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세기 초에 전개된 딜타이와 트뤼취의 고전적 논쟁<sup>2)</sup> 이래로 본 주제는 학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시켜 왔고 최근까지도 종교개혁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꾸준한 열의와 다양한 시도에도 불

---

1) 本稿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Philip Melancthon's Reform of German Universities and Its Significanc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naissance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Ohio State Univ., 1995)의 1장, 3장, 그리고 4장의 일부분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2) 종교개혁을 휴머니즘의 종교적 표출이라고 간주한 딜타이와 兩者의 異質性을 강조한 트뤼취의 논쟁은 Wilhelm Dilthey, *Auffassung und Analyse des Menschen im 15. und 16. Jahrhundert, Gesammelte Schriften*, 2 (Stuttgart, 1940), pp. 39-63; Ernst Troeltsch, *Renaissance und Reformation, Gesammelte Schriften*, 4 (Tübingen, 1925), pp. 261--296에 잘 나타나 있다.

구하고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兩者의 관계에는 우호성과 배타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 왔고 또한 그 우호성이나 배타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도 관찰자에 시각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개인적 사관의 차이, 휴머니즘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 거기서 비롯된 접근방식의 차이를 포함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왔다. 요컨대, 트레이시가 본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분석한 그의 논문에서 규정하듯이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는 하나의 '수수께끼' (conundrum)로 남아있다.<sup>3)</sup>

본 주제를 '수수께끼'로 만든 요인중 하나는 휴머니즘에 대한 루터의 입장과 종교개혁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반응이 현격한 대조를 보였다는 것이다. 루터의 휴머니즘에 대한 애호는 비록 휴머니즘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일관되게 표출되었다. 루터가 북방 휴머니스트들 - 특히, 에라스무스와 로이힐린 (Johannes Reuchlin) - 에 의해 배양된 '성서휴머니즘' (Biblical humanism)에 정통하였고 이 성서휴머니즘이 그의 개혁신학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sup>4)</sup> 상당수의 휴머니스트들이 고전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어화된 이름을 사용했듯이 루터는 'Eleutherius' (자유인) 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고 또한 스스로를 제2의 로이힐린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한편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서한〉 (1520)에서 그는 당시 독일대학의 교육실태를 탄탄

3) James Tracy,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Reformation Europe: A Guide to Research*, ed. by Steven Ozment (St. Louis: Center for Reformation Research, 1982), pp. 33-57.

4) 성서휴머니즘은 '원전으로 돌아가자' ('ad fontes') 라는 휴머니스트들의 슬로건을 성서 연구에 적용하려는 경향으로 스콜라 신학자들의 변증적이고 난해한 주석을 통한 신학연구를 거부하는 한편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학습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 성경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5) Hans von Schubert는 그의 "Reformation und Humanismus," *Luther-Jahrbuch*, 8 (1926), pp. 1-26에서 루터의 개혁신학 발전과 성서휴머니즘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거의 모든 학자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See Helmar Junghans, "Der Einfluß des Humanismus auf Luthers Entwicklung bis 1518," *Luther-Jahrbuch*, 37 (1970), pp. 37-101, esp. 57ff.; Ernest G. Schwiebert, *Luther and His Times: The Reformation from a New Perspective* (St. Louis, 1950), pp. 275-302.

하면서 교과과정이 성경과 인문과목들을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6)</sup> 직업적 휴머니스트는 아니었지만 그는 휴머니즘의 수혜자였고 비록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의 휴머니즘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의 종교개혁에 대한 초기의 동조와 후원은 일종의 ‘건설적 오해’ (constructive misunderstanding)<sup>7)</sup>에서 연유하였고 이러한 ‘오해’를 깨달은 즉시 그는 루터의 개혁운동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에라스무스 눈에 비친 루터는 단순한 동료 휴머니스트가 아니었다. 스콜라 철학을 향한 루터의 비난은 형식이 아닌 내용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의 聖書至上主義 (sola Scriptura)는 휴머니스트들의 理想인 ‘ad fontes’를 고양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루터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의 카톨릭 체제내에서 교회의 타락과 불합리한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북방 휴머니스트들의 의도를 넘어 근본적 카톨릭 교리와 그에 입각한 모든 제도와 관행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개혁하는데 있었다. 결국 15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종교개혁이 재세례파의 등장, 칼슈타트 (Andreas Karlstadt)가 주도한 몽매주의 (obscurantism)의 확산, 농민전쟁의 발발로 급진적 양상을 띠고 이로 인해 대학을 포함한 많은 교육 기관의 타격이 가중되자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bonae litterae’의 적으로 간주하였다. “루터교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학문은 사라진다”<sup>8)</sup>라는 그의 유명한 표현은 종교개혁에 대한 그의 부정적 입장을 확연히 보여준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두 인물의 이와 같은 상반된 태도는 兩

6) “Address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by John Dillenberger (New York, 1961), section 25, pp. 470--476.

7) ‘constructive misunderstanding’ 은 Bernd Moeller가 그의 논문 “The German Humanists and the Beginnings of the Reformation,” *Imperial Cities and the Reformation*, trans. by H. C. Erik Midelfort & Mark U. Edwards, Jr. (Philadelphia, 1972), p. 29에서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초기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語句로서 본 주제를 다루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상투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8) *Opus epistolarum Des. Erasmi Roterodami*, ed. by P. S. Allen, H. M. Allen, and H. W. Garrod (Oxford, 1906--1958), 3, p. 538: “Ubi regnat Lutheranismus, ibi interitus litterarum.”

쪽의 관계에 대한 일률적 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兩者의 관계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학계의 衆論은 무엇보다도 본 주제를 사상사 (Ideengeschichte 혹은 Geistesgeschichte)적 측면에서 조명해 온 뿌리깊은 전통에 일차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휴머니즘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의 도래가 불가능했거나 적어도 다른 道程을 밟게되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兩者는 근본적으로 화합될 수 없는 배타적 이질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휴머니스트들과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인간관과 가치관에 있어서 서로 상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능력과 합리적 자율성을 신뢰하는 휴머니즘은 인간의 본질적 타락성과 나약함 그리고 신의 섭리에 의한 역사의 진행을 강조하는 종교개혁가들의 사상과 이념적으로 대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당시의 실례로 학자들은 구원에 있어서의 자유의지의 역할을 둘러싼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격렬한 논쟁을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사상사적 접근방식의 위세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필립 멜란히톤 (Philip Melancthon: 1497-1560)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기실 멜란히톤 개인적 삶의 궤적에는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이라는 당시의 두 역사현상이 축소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휴머니스트와 교육가로서 그의 탁월한 명성은 잘 알려져 있다. 튀빙겐 대학에서 수학할 시절부터 그는 이미 휴머니즘에 정통해 있었고 로이힐린의 추천에 의해 약관 21세의 나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최초의 그리스어 담당교수로 부임하였다. 독일의 수많은 라틴학교와 gymnasium이 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건립되었고, 휴머니즘을 반영하는 그의 많은 저작들이 초·중등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상당수의 저명 휴머니스트가 그의 제자중에서 배출되었다. 생존 당시부터 그가 '독일의 교사' (Praeceptor Germaniae)라는 칭호로 불리워진 사실은 휴머니스트 교육가로서의 그의 확고한 위치를 대변하고 있다.<sup>10)</sup>

9) 예를 들면, Steven Ozment는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고〉와 루터의 〈자유의지의 속박〉의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은 사상적으로 상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See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0), pp. 290-302.

10) 휴머니스트와 교육가로서의 멜란히톤의 모습은 고전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한편 종교개혁가로서의 멜란히톤은 루터에 버금가는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주의 최고의 신학자중 하나였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여러 신학과목을 강의하였고 프로테스탄티즘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아우그스부르크 고백서〉(1530)를 집필하였다. 더구나 그가 저술한 《기본적 신학 주제들》(《Loci Communes Theologici》)은 개신교 최초의 조직신학서로서 루터파에 속한 모든 독일대학에서 대표적 신학교재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해박한 신학지식을 바탕으로 카톨릭측과의 수많은 현상과 토론에서 루터파의 대변자로 활약하였고 범법자로 낙인찍힌 루터가 전면에 나설 수 없었던 시기와 1546년 루터가 사망한 이후에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실질적 지도자였다.

이렇듯 兩분야에서 혁혁한 족적을 남겼고 그 자신 어느 한쪽을 경시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멜란히톤은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調和의 표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를 사상사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그를 兩者의 불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두가지의 비근한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1521년 출판된 《기본적 신학 주제들》에서 그가 구원에 있어서의 자유의지의 역할을 단호히 부정하였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멜란히톤 연구의 대가인 마우러는 루터와의 조우가 있기전 순수한 휴머니스트였던 멜란히톤이 인간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예정론적 견해를 취한 것은 1519년경 그가 구원은 단지 신의 은총이고 무상의 선물이라는 루터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이는 “에라스무스와 루터, 휴머니즘과 종교개혁 사이에 깊이 숨어있는 알력의 표면화”<sup>11)</sup>를 예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1540년경 부터 멜란히톤은 일부 신학적 문제에 있어서 루터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루터의 準化體說 (semi-transubstantiation)로 루터의 일탈로 말미암아 그는 루터 死後에 ‘순수한 루터파’

Karl Hartfelder의 *Philip Melanchthon als Praeceptor Germaniae* (Berlin, 1889)에 잘 묘사되어 있다.

11) Wilhelm Maurer, “Melanchthons Anteil am Streit zwischen Luther und Erasmus,”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9 (1958), p. 114. 이러한 Maurer의 견해는 그의 *Der Junge Melanchthon zwischen Humanismus und Reformation*, 2 (Gütersloh, 1969), pp. 230-261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Gnesio-Lutherans)에 의해 'Crypto-Calvinist' ('숨은 칼뱅주의자'의 뜻으로 외형상으로는 루터파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칼뱅파에 속하는 쫓겨간 경멸적으로 지칭함)로 불리웠다. 학계의 중론에 따르면 멜란히톤이 칼뱅의 영적임재설로 선회한 것은 예수의 살과 피가 '실질적'으로 빵과 포도주에 임한다는 루터의 준화체설이 갖고 있는 비합리성에 대한 반발이며 이는 그의 성향에 내재된 휴머니즘의 발로라는 것이다. 성찬에 대한 異見을 비롯한 루터와 멜란히톤의 신학적 차이를 분석한 그의 저서에서 힐데브란트는 "멜란히톤이 봉착한 문제는. . . 종교개혁과 휴머니즘사이의 불협화음에 있다"<sup>12)</sup>라고 결론짓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멜란히톤은 두개의 대립적 이념속에서 갈등하고 배회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본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은 간과할 수 없는 두가지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번째, 기존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사상사적 조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휴머니즘의 실체에 대한 인식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르네상스사 연구의 선구자인 부르크하르트(Jakob Burckhardt)의 해석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휴머니즘을 인본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등을 지향하는 특정한 이데올로기 또는 철학적 사조로 개념화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를 신학적, 철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 휴머니즘은 종교개혁의 도래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고 1517년 이후에도 잠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인간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고 합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휴머니즘과 神중심의 超자연적 세계관에 기초한 종교개혁은 궁극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전통적 이론을 낳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휴머니즘은, 크리스텔러가 갈파한대로, 일정한 철학사조가 아니라 그 본질은 그리스·로마의 고전학습을 통하여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 수사학, 어학, 역사학, 詩, 윤리학 - 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한 학문·교육운동이라는 점이다. 크리스텔러에 의하면 휴머니스트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일정한 이데올로기나 신학적 견해를 명백히 표명한 자가 적지 않지만 그러한 그들의 사상적 입장중 어느 것도 모든 휴머니스트들이 공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어느 한 휴머니스트의 철학사상도

12) Franz Hildebrandt, *Melanchthon: Alien or Ally?* (Cambridge, Eng., 1946), p. 98.

휴머니즘의 본질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모든 휴머니스트들을 同質의 단일집단으로 묶어주는 요소는 고전과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를 통하여 사회에 필요한 교양인을 양성한다는 그들의 공통된 목표에 있다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크리스텔러의 정의는 르네상스사 학계에서 이미 ‘떠오르는 의견일치’ (emergent consensus)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4)</sup>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를 연구하는 종교개혁사 학자들 사이에는 기존의 사상사적 접근경향이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5)</sup> 기존의 연구에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연구대상 시기가 일반적으로 95개조 반박문사건 이전시기와 종교개혁의 초기단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본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이 종교개혁의 기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루터의 혁명적 신학이 역사의 무대를 주도했던 종교개혁 초기가 사상사적 연구의 구미에 맞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조류 속에서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이 당시의 독일사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정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兩者가 서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보다 중요한 문

13) Paul O. Kristeller, *Renaissance Thought: The Classics, Scholastics, and Humanistic Strains* (New York, 1961), p. 20.

14) See Charles Nauert, "Renaissance Humanism: An Emergent Consensus and Its Critics," *Indiana Social Studies Quarterly*, 33 (1980), pp. 5-20. 휴머니즘에 대한 대표적 정의들 - Burckhardt, Giuseppe Tofannin, Hans Baron, Kristeller, Charles Trinkaus, William Bouwsma의 定義를 포함하여 - 을 위해서는 위의 Nauert의 논문과 다음의 문헌 참조: Helmar Junghans, "Der Einfluß des Humanismus," op. cit., pp. 45-57; Donald Weinstein, "In whose Image and Likeness? Interpretations of Renaissance Huma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3 (1972), pp. 165-176; 김영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探求堂, 1989, pp. 85-171.

15) 크리스텔러의 의견에 근거하여 필자가 덧붙이고 싶은 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가 휴머니즘에서 연유되었다는 가정은 再考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의 역할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신학적 입장은 학문추구의 방법론에 있어서 휴머니즘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한 핵심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루터의 공격은 휴머니즘과의 충돌이 아니라 중세신학에의 도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또한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상당수의 휴머니스트들이 예정론을 내세운 루터에 등을 돌린 것은 휴머니즘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근본적으로 카톨릭측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제들은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어왔다. 이 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중의 하나이다. 만일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이 중세말 혹은 근세초에 일시적으로 존재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현상들이라면 그것들은 유럽사에 있어서 단순한 에피소드에 불과할 것이다. 이 두 현상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당시 사회속에 정착·제도화되고 더 나아가 그 이후로 인간생활에 지속적 영향을 남겼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머니즘이나 종교개혁의 기원 또는 그 초기관계의 성격을 밝히려는 모든 시도들 역시 이 현상들이 그 이후의 유럽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가정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또한 그 관계의 균형적 이해를 위해서는 兩者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가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멜란히톤의 독일대학 커리큘럼 개편을 새로운 가늠자로 채택하였다. 이 선택에는 교육사적 조명의 당위성이 고려되었다. 위에서 거론되었던 바 휴머니즘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학문·교육운동이었고 또한 종교개혁의 정착과정에 있어서도 교육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개혁의 성공여부는 사회전반에 그들의 교리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성직자의 양성과 효율적인 평신도 교육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였고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 대학 커리큘럼의 개편, 서품심사(ordination exam)의 강화, 정기적 교구시찰(visitation)의 제도화를 통하여 성직자 교육의 내실을 기한 한편 평신도를 위해서는 집중적 교리문답(catechism) 교육을 실시하였다. 요컨대, 키텔슨의 최근의 주장대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개혁의 완성을 일련의 교육과정(educational process)을 통해서 도모하였던 것이다.<sup>16)</sup> 따라서, 학문·교육운동인 휴머니즘과 종교개혁가들의 교육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접촉하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종교개혁기의 독일대학은 비상한 관심을 끈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의 확산과 제도화의 정도는 최고의 공식적 학문기관인 대학의 커리큘럼

16) James Kittelson, "Learning and Education: Phase Two of the Reformation," *Die dänische Reformation vor ihrem internationalen Hintergrund*, ed. by Leif Grane and Kai Horby (Göttingen, 1990), pp. 149-163.



에서 차지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의 위상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데 그 위상의 변화 — 퇴보이던 진전이던 간에 — 에 있어서 종교개혁가들의 교육 정책이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가르쳐지고 있는 교회법, 敎領, 스콜라 신학, 철학, 논리학이 완전히 철폐되고 새로운 과목들이 제정되지 않으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확신한다”<sup>17)</sup>라는 루터의 —말이 보여주듯이, 대학 커리큘럼 개편은 종교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사안이었다. 일선 목회자들은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교구민들에게 전달·교육하는 교회개혁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의 성격과 교육방법은 종교개혁가들의 일차적 관심사가 된 것이다. 결국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은 각각의 정착화 과정에서 대학의 커리큘럼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독일의 초·중등교육사에 남긴 그의 업적에 가려 그동안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왔지만, 멜란히톤은 16세기 독일대학 커리큘럼의 변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sup>18)</sup> 1560년 그가 사망할 당시 존재했던 16개의 독일대학중 10개 대학의 커리큘럼이 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개편되거나 신설되었다.<sup>19)</sup> 커리큘럼개편을 통해 그는 휴머니스트이자 종교개혁가로서의 그의

17) *D. Martin Luthers Werke. Briefwechsel (WA Br)* (Weimar, 1930—1978), 1, no. 74, p. 170: “ego simpliciter credo, quod impossibile sit ecclesiam reformari, nisi funditus canones, decretales, scholastica theologia, philosophia, logica, ut nunc habentur, eradicentur et alia studia instituantur.”

18) 필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멜란히톤의 독일대학 커리큘럼 개편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2차문헌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19세기 후반에 출판된 두개의 저서가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서술이 개략적이어서 그가 대학 교과과정을 개편한 이유, 시대적 상황, 세부적 개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See Friedrich Paulsen, *Geschichte des gelehrten Unterrichts aus den deutschen Schulen und Universitäten*, 1 (Leipzig, 1896), pp. 211—242; Karl Hartfelder, *Philip Melancthon als Praeceptor Germaniae*, op. cit., pp. 436—488, 506—538.

19) 종교개혁 이후에 설립된 3개 대학 — Marburg (f. 1527), Königsberg (1554), Jena (1558) — 의 커리큘럼은 그의 지시하에 작성되었으며 종교개혁 이전에 설립된 13개 대학중 7개 대학 — Wittenberg, Leipzig, Tübingen, Heidelberg, Rostock, Frankfurt — an — der — Oder, Greifswald — 의 커리큘럼 개편은 해당대학의 소재지역이 루터파에 속하게 된 후 멜란히톤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그의 조언에 따라 이행되었다.

일관된 교육관을 구현하였고 그에 의해 개편된 교과과정하에서 미래의 독일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들이 교육되었다. “프로테스탄트 독일 전체를 통하여 대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의 창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0)</sup>라는 로드의 찬사는 독일대학사에 있어서 그의 커리큘럼 개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멜란히톤에 의해 커리큘럼이 개편 또는 신설된 10개의 대학중 비텐베르크 대학을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비텐베르크 대학은 종교개혁의 요람이자 교회개혁을 지속적으로 계획·집행해 간 수령부로서 성직자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에 있어서 멜란히톤이 가장 역점을 둔 대학이며 대부분 一回의 이었던 타 대학의 경우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개편이 이루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번째, 타 대학의 커리큘럼 개편은 비텐베르크 대학을 그 모델로 삼고 있어 일부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그 대체적 내용이 거의 흡사하므로<sup>21)</sup> 비텐베르크 대학을 멜란히톤이 수행한 커리큘럼 개혁의 典型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는 면이 고려되었다.

## II. 멜란히톤의 성직자 교육관

### 1.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와 성직자 교육

1519년 루터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독일 종교개혁의 한 지도자로 부상한 후부터 멜란히톤의 최대 관심사는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확산에 있었다. 교리전파에 핵심적 매개체가 되는 교구목사들의 교육이 휴머니스트이기도 한 그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음은 당연할 일이다. 특별히 152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 교구시찰은 그로 하여금 교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직자 교육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1527년 8월 8일 투링기아(Thuringia)의 한 농촌교구를 방문하는 중간에 멜란히톤은 그의 제자이자 훗날 그의 전기를 쓴 카메라리우스(Joachim Camerarius)에게 편지하기를,

20) Richard Rothe, “Rothe’s Address on Philip Melanchthon,” trans. by Erskine N. White, *American Theological Review*, 3 (1861), p. 277.

21) 필자의 학위논문, “Philip Melanchthon’s Reform of German Universities,” op. cit., pp. 118-190 참조.

나는 지금 가장 힘겨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무지와 부도덕 때문에 실로 모든 것이 혼란속에 빠져 있습니다.<sup>22)</sup>

지역교구의 어지러운 상황이 일차적으로 무능한 성직자들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판단한 멜란히톤은 이를 후 부젠하겐 (Johannes Bugenhagen)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 나에게 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도 어떤 장소 [교구]에 파송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고, 루터와 다른 훌륭한 사람들의 최고의 글들이 얼마나 서투르게 모방되는지 당신은 실로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sup>23)</sup>

다음해 (1528)에 수행된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중추지역인 에르네스틴 작센 (Ernestinische Sachsen)의 지방교구의 방문결과도 매일반이었다. 그는 자책조로 한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엄청난 무지와 어리석음속에 방치하여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 불행한 사태를 목격하면서 나의 가슴은 피를 흘리고 있다. 우리가 한 지역의 조사를 마치고 나면 나는 종종 구석으로 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나의 마음을 달래곤 한다.<sup>24)</sup>

22) *Corpus Reformatorum. Philippi Melancthonis Opera*, 이하 CR, ed. by Carlos G. Bretschneider and Henricus E. Bindseil (Halle, 1834-1860), 1, no. 454, p. 881: "Ego in molestissimis negotiis hoc tempore et quidem nullo cum fructu, quantum video, versor. Adeo sunt omnia perturbata partim inscitia doцентium, partim improbitate."

23) *Ibid.*, no. 456, p. 883: "Ego deinceps neminem mittam quoquam nisi antea auditum a me. Non credis enim, quam inepte multi doceant, tam male imitantur optime scripta a Luthero et allis bonis viris." (두 번째 문장에서 'optime'는 'optima'를 誤記한 것으로 판단됨; 편집자의 각주 7 참조.)

24) "Wie kann man es verantworten, daß man die Leute bisher in so großer Unwissenheit und Dummheit gelassen hat! Mein Herz blutet, wenn ich diesen Jammer erblicke. Ich geht oft beiseite und weine meinen Schmerz aus, wenn wir mit der Untersuchung eines Ortes fertig sind." Cited in Hans Engelland, "Melancthon's bedeutung für Schule und Universität," *Luther, Mitteilungen der Luthergesellschaft*, 31 (1960), p. 24.

간단히 말하자면, 10여년 전 시작된 종교개혁은 아직 사회저변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일반인들은 루터파의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교구 목사들 역시 그들의 교구민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성경교육, 설교, 그리고 훈계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교구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성직자들의 저급한 교육수준은 멜란히톤을 통탄케 하였다. 극단적 예를 들면, 그가 조사한 지방 성직자들 가운데는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는 차치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마저 모르는 자들이 있었으며<sup>25)</sup> 또한 십계명을 잘 가르치고 있는냐는 멜란히톤의 질문에 “나는 아직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sup>26)</sup>라는 한 교구목사의 답변은 당시의 상황을 가히 짐작케 한다.

멜란히톤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시도한 성직자교육의 개선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교육량의 증대를 꾀하였다. 엄격하게 준수되지는 않았지만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로 서품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수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었고 교권내의 신분상승도 학력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sup>27)</sup> 그 결과로, 16세기말 독일 프로테스탄트 성직자의 대부분이 대학졸업자로 구성되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졌다.<sup>28)</sup> 교구시찰도 중요한 성직자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1527년 이후 모든 루터파 성직자들은 비텐베르크로 부터 파견된 감독관들에 의하여 그들의 지식수준과 교육방법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받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부적격자들은 그에 상응하

25) Clyde L. Manschreck, *Melanchthon: The Quiet Reformer* (New York: Abingdon Press, 1958), pp. 136-137.

26) Paul Drews, *Der evangelische Geistliche in der deutschen Vergangenheit* (Jena, 1905), p. 15에서 再 인용.

27) Kittelson, "Learning and Education," op. cit., pp. 155-156.

28) 중세말 독일의 성직자의 대학교육이수 비율은 고위성직자를 포함하여 약 40%를 하회하였다. James Overfield, "University Studies and the Clergy in Pre-Reformation Germany," *Rebirth, Reform, and Resilience: Universities in Transition, 1300-1700*, ed. by James M. Kittelson and Pamela J. Transue (Columbus, Ohio: Ohio State Univ. Press, 1984), pp. 273-274, note 19 참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16세기말 제국 자치도시인 Strasburg의 경우는 성직자의 70% 이상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었으며 같은 시기 Rheinland의 성직자중 대학교육을 받은 자는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다. Kittelson, "Learning and Education," op. cit., p. 156; Bernard Vogler, *Le Clergé protestant rhenau au siècle de la réforme (1555-1619)* (Paris, 1976), pp. 75-76 참조.

는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sup>29)</sup>

교육량의 증진 못지않게 종교개혁가들이 주력한 분야는 성직자교육의 질적 개선이었다. 이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멜란히톤은 대학 커리큘럼을 개편한 것이고 여기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를 그 도구로 채택한 것이다. 그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를 성직자교육의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은 종교개혁이 정립한 새로운 목회관에 그 기원을 두고있다.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루터의 신학은 카톨릭 교회의 근간인 종교적(儀式)의 위상을 흔들 어 놓았고 그 당연한 귀결로 중세 사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성례집전은 목회에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聖書至上主義는 설교와 성경교육을 목회자의 우선적 의무로 부상시켜 놓았다. 루터는 그의 이상적인 목회관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일. 세례를 베푸는 일. 성찬을 축성하고 집전하는 일. 죄를 지우고 사면하는 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희생하는 일. 모든 영혼과 교리를 판단하는 일. 확실히 이 일들은 훌륭하고 대단히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나 이중 가장 으뜸가고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sup>30)</sup>

멜란히톤 역시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1558년 그는 비텐베르크에서 서임되는 목회자들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품심사 지침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목회자의 우선적 임무는 “참되고 영원히 올바른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이해하는 데에 있다”<sup>31)</sup>라고 명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루터와의 성직자로 봉직할 자들은 신·구약성경과 니케아 信經, 아타나시우스 信經, 루터의 교리문답서,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고백서<sup>32)</sup>의 “핵심사항과 모든 필요한 부분을 알고 익혀야 하며” 그와 더불어

29) 교구시찰의 구체적 절차와 그 내용을 위해서는 Gerald Strauss, *Luther's House of Learning: Indoctrination of the Young in the German Reformation* (Baltimore, 1978), pp. 249-261.

30) “Concerning the Ministry,” *Luther's Work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 40, p. 21.

31) “Der Ordinanden Examen, wie es in der Kirchen zu Wittemberg gebraucht wird,” *CR*, 23, p. xxxv: “steht. . . in pflanzung und erkenntnis der. . . warhafftigen, ewigen rechten lere des Euangeli. . .”

32) *Ibid.*, p. xxxviii.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조리있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sup>33)</sup>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가 성직자들이 성경과 신교의 교리를 제대로 습득하고 가르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멜란히톤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어학적 지식이 성경의 내용을 회색시키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조건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하늘의 신비와 신의 섭리는 스킨라 신학자들의 주석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이므로 성경의 어휘와 문법적 구조의 원어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이것 없이는 신학적 진리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다.<sup>34)</sup> 그가 저술한 그리스어 문법교재의 서문에서 멜란히톤은 어학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년들에게 정확한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늘의 가르침의 순수성은 문자없이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교회의 교사가 문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쓸데없이 떠드는 가장 주제넘는 자라고 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을 사랑할 수 없다.<sup>35)</sup>

요컨대, 멜란히톤에게 있어서 어학교육, 특히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교육이 결여된 성직자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멜란히톤의 이상적 목회자는 단순한 문법학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동시에 수사학자이기도 하다. 즉, 정확한 성경이해가 어학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효율적 교리전달은 수사학의 연마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래의 성직자를 위한 수사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사상은 이탈리아

33) *Ibid.*: “Dieser Lere summa, und alle nötige stück, sollen die Pastores selb wissen vnd lernen, vnd dem Volck. . . ordentlich vnd verstandlich furtragen.”

34) *Melanchthons Werke in Auswahl*, 이하 *MWA*, ed. by Robert Stupperich (Gütersloh, 1951–1961), 3, pp. 58–60. 인용문은 p. 59: “sine quibus stare res theologica non potest.”

35) *CR*, 3, p. 1119: “Quantum enim refert Ecclesiae Christi, recte instituti pueros in Grammaticis! Cum doctrinae coelestis puritas conservari sine literis non possit. . . quid erit in Ecclesia Doctor sine Grammatica aliud. . . aut impudentissimus rabula? Ac ne amare quidem sacras literas possunt, qui genus sermonis non intelligunt.”

의 저명한 플라톤 학자이자 휴머니스트인 피코 (Pico della Mirandola)를 공박한 그의 글에<sup>36)</sup> 잘 나타나있다. 그는 여기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통례적인 어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스콜라 학자들과 그들에 의해 교육받은 자들은 “문법적으로 큰 오류들을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마저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기괴한 용어” (monstrous terminology)와 “불가해한 상상” (inexplicable fancies)에 탐닉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로 “경건치 못하고 유해한 견해들” (impious and pernicious opinions)이 교회에 범람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간결한 문장과 용이한 어법구사에 문외한인 그들의 표현은 상황과 방만을 낳고 더 나아가 신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멜란히톤은 성직자가 교육수준이 낮은 교구민들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교리를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수사학적 자질의 함양에 진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수사학적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자신들을 교회의 교사라고 또한 삶의 안내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의 주장은 수사학을 무시한 기존의 성직자 교육방식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현실목회라는 일종의 ‘vita activa’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主知主義的 지식추구’ 보다는 ‘主意主義的 지혜전달’에 의미를 부여하는 휴머니즘의 精髓를 십분 반영하고 있다.<sup>37)</sup>

성직자 교육을 위해 장려된 또 하나의 과목은 역사학이다. 멜란히톤은 1539년 번역출판된 한 연대기의 서문<sup>38)</sup>을 집필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역사학의 종교적 효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멜란히톤에 의하면, 역사학은 그릇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교회의 제도와 관행을 분별케 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36) “Melanchthon’s Reply to G. Pico Della Mirandola,” trans. by Quirinus Bree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13 (1952), pp. 413–426. 이 글에서 멜란히톤은 수사학은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 효용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피코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 그 배경을 위해서는 idem, “The Subordination of Philosophy to Rhetoric in Melanchthon,”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3 (1952), p. 13–15 참조.

37) 본 문단에 인용된 어구들과 문장은 *Ibid.*, pp. 418, 422, 425.

38) “orrede zu Cuspianians Chronik,” in Robert Stupperich, *Der unbekannte Melanchthon: Wirken und Denken des Praeceptor Germaniae in neuer Sicht* (Stuttgart, 1961), appendix 6, pp. 183–191.

교부신학자 오리게네스(Origenes)의 글을 읽어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어린 이의 세례를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sup>39)</sup> 다시 말하자면, 영아세례를 거부하는 재세례파의 오류가 역사의 학습을 통해 파악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3세기에 활동한 디오니시우스(St. Dionysius)의 유작들은 개인을 위한 미사가 초대교회의 전통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한다.<sup>40)</sup> 즉, 카톨릭 교회儀式的 비정통성이 과거의 기록에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사를 연구하면 교황을 교회의 수반으로 등극시켜 놓은 ‘사도 계승설’(Theory of the Apostolic Succession)이 날조된 이론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11세기에 전개된 교황과 황제의 투쟁사를 보면 “어떻게 교황의 권력이 신장되고 어떻게 그것이 교회에 많은 악패를 유포시켰는지”<sup>41)</sup>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주는 역사학이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단사상들에 의해 분열되었으며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무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게 되었다”<sup>42)</sup>고 멜란히톤은 덧붙이고 있다. 그는 역사학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결론짓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이유들에 비추어 보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아는 것은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 . . 그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많은 사안들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sup>43)</sup>

역사가 교리와 교회제도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척도가 된다면 ‘모든 기독교

39) *Ibid.*, p. 187.

40) *Ibid.*: “. . . findet man auch, das etlich hundert jar vor Gregorio keyne privat Messen gewesen, sonder die Kirch hatt eyn gemeyne Communio gehalten.”

41) *Ibid.*, p. 188: “. . . wie die Bápstlich gewalt gestigen und wie in der kirchen viel mißbreuch eingerissen.”

42) *Ibid.*, p. 187: “. . . die kirchen waren durch Ketzereien zerrissen und war das volck jrr und fürwitzig und verachtet Gottis wort.”

43) *Ibid.*, pp. 188–189: “Das nun den Christen nutzlich und not sey, Historien zu wissen, ist auß gemelten ursachen clar, das sie . . . mögen viel streitige sachen zu richten, Item zu bessern verstand der heyligen geschriff.”



인들'중 누구보다도 성직자들이 역사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역사학은 멜란히톤이 개편한 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었고, 많은 경우 성직을 희망하는 자들은 서품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충분한 역사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되었다. 멜란히톤이 몸소 비텐베르크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1549년부터 1555년까지의 기간동안 역사지식이 지원자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관건중 하나였다는 사실은<sup>44)</sup> 성직자 육성에 있어서 역사학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그의 확신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 2. 'Loci' 교수법

멜란히톤이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를 교양학부 커리큘럼의 주요과목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성직자 교육이라는 종교개혁의 중대 현안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 어학, 문법, 수사학, 역사학 과목들은 신학연구와 목회능력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점은 루터와 성직자들의 궁극적 학습대상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가 아니라 성경과 신교의 교리였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의 학습은 신학연구의 예비과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멜란히톤은 보다 효율적인 신학교육을 위해서 'loci' 교수법 — 혹은 'topoi' 교수법 — 이라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독특한 교육기법을 도입하였다. 성직자들이 교리를 배우고 전달하는 데 활용된 이 기법은 멜란히톤이 16세기 루터와 교육정책에 남긴 공헌중 그 백미라 할 수 있다.

'Loci' 교수법은 집약, 간결, 반복을 특징으로 하는 휴머니스트들의 학습기법이다.<sup>45)</sup> 'loci' 교수법에 깔려있는 기본 가정에 의하면, 한 작가가 일정한 대상을 설명할 때는 몇개의 주요한 '주제' (locus 혹은 topos)를 중심으로

44) Bernhard Klaus, "Social Herkunft und theologische Bildung lutherischer Pfarrer der reformatorischen Frühzeit,"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80 (1969), p. 40.

45) 'Loci' 교수법의 발달과정과 그 특징을 위해서는 Neal W. Gilbert, *Renaissance Concepts of Metho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0); Joan A. Lechner, *Renaissance Concepts of the Commonplace* (New York, 1962); Walter J. Ong, *Ramus, Method, and the Decay of Dialogue* (Cambridge, Mass., 1958), pp. 92-167.

그의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나 핵심사상의 파악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loci’를 집약적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취해야 하며 복잡한 개념정의, 문제의 본질에서 이탈된 상황한 이론, 지엽적 사안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loci’ 교수법은 세부적인 것과 논리의 정확성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스콜라 철학<sup>46)</sup>의 반대급부이자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멜란히톤의 중요성은 휴머니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이 ‘loci’ 교수법을 신학교육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킨데 있다. 그의 《기본적 신학 주제들》은 이 기법을 이용한 대표적 작품이다. 《기본적 신학 주제들》에서 그는 여러개의 기본적 주제들을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 ‘loci’라 할 수 있는 ‘믿음에 의한 구원’과 연관시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sup>47)</sup> 멜란히톤은 서두에서 이 책을 저술한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기독교 가르침의 으뜸되는 주제들”을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대신 아리스토텔레스의 난해함을 제공한 사람들의 신학적 망상들 (theological hallucinations)이 얼마나 부패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학습대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요지도 일정한 ‘loci’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이 ‘loci’에 집중하는 것이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그런데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 원리를 외면하였고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는 성경의 의미를 밝히기 보다는 인간의 견해들을 쌓아 올렸다.”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리는 경박한 현학으로 퇴락하였고,” 신학은 “철학적 횡설수설의 숲”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사변적 논리로 점철된 기존의 스콜라 신학자들의 저서와는 달리 “이 책은 하나의 주석(commentary)이라기 보다는 색인(index)의 기능을 한다.”<sup>48)</sup> 멜란히톤은 1555년판 《기본적 신학주제들》

46) 필자는 ‘scholasticism’의 번역어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단어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cholasticism’은 논리학을 수단으로 삼아 진리탐구를 수행하는 학문적 경향 또는 방법론을 지칭하는 것이지 일정한 ‘철학’이 아니다. 좋은 우리말이 없다면 ‘humanism’을 ‘휴머니즘’으로 표기하듯이 소리나는 대로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적다고 보여진다.

47) “Loci Communes Theologici,” trans. by Green Lowell, in *Melanchthon and Bucer*, ed. by Wilhelm Pauck (Philadelphia, 1969), pp. 18–152.

에서 ‘loci’ 교수법을 목회자의 교리습득과 교리전달에 연관시켜 그 효능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교회는 “올바른 성향의 교사들,” 즉 “하나님에 대한 새롭거나 기이한 교리를 고안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드러난 純正한 (unadulterated) 의미를 견지하는 자”들을 필요로 한다.<sup>49)</sup> 이들은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주제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자기자신을 유익하게 가르치고 남을 지혜롭게 교육한다.”<sup>50)</sup> 한마디로, 멜란히톤에게 있어서 성경의 ‘loci’는 “믿음의 출처이며, 水源이며, 기초”이고 ‘loci’ 교수법은 “고귀한 지혜와 하늘의 빛”을 터득·전달케하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다.<sup>51)</sup>

《기본적 신학주제들》에 주어진 명성<sup>52)</sup>은 대체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정통교리를 담은 그 내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은 거기에 나타난 멜란히톤의 서술형식과 그가 그러한 서술형식을 채택한 의도의 중요성이다. 《기본적 신학주제들》의 내용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대변한다면 그 설명방식은 휴머니스트들의 교육기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의 ‘loci’ 교수법은 종교개혁가들이 차후 성직자와 일반 교구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신학교재들, 교리지침서, 교리문답서의 형식에 그대로 답습되었다.<sup>53)</sup> 여기서 우리는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조화와 제휴의 일면을 볼

48) 본 문단의 지금까지의 내용과 거기에 인용된 어구들은 *Ibid.*, pp. 18-21.

49) *Melanchthon on Christian Doctrine: Loci Communes 1555*, trans. and ed. by Clyde L. Manschreck (New York, 1965), p. xliii.

50) *Ibid.*, p. xlvi.

51) *Ibid.*, p. xliiii.

52) 루터는 *D. Martin Luthers Werke. Tischreden (WA Tr)* (Weimar, 1912-1921), 5, no. 5511, p. 204에서 “이 두가지 [성경과 《기본적 신학주제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학자이며 악마도 이단자도 그를 흔들 수 없다” (“Wenn er die zwei hat, so ist er ein theologus, dem wider der Teuffel noch kein ketzer abbrechen kan.”)라고 극찬한 한편 James Richard는 그의 *Philip Melanchthon: The Protestant Preceptor of Germany* (New York, 1907), p. 101에서 《기본적 신학주제들》을 “the Magna Charta of the evangelical system”으로 표현하였다. 1521년에 처음 출판된 이 책은 16세기 말까지 독일 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라틴어와 독일어로 再版되었다. 독일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필수교재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상당부분을 암기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53) Robert Kolb, “Teaching the Text, the Commonplace Method in Sixteenth Century Lutheran Biblical Commentary,” *Bibliothèque d’Humanisme et Renaissance*, 49 (1987), pp. 571-585.

수 있는 것이다.

아래서 고찰될 멜란히톤의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 개편은 휴머니스트로서의 그의 확고한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가의 길로 들어선 후 그의 커리큘럼 개편은 보다 절실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성공은 성직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인식한 그는 효율적 성직자 교육을 위한 도구를 휴머니즘에서 찾게되었다. 그는 어학, 수사학, 역사학은 성경의 정확한 원어적 이해, 설교와 성경교육에 요구되는 표현력, 교회제도와 교리의 타당성에 대한 분별력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loci' 교수법이라는 휴머니즘 고유의 교육기법은 보다 효과적인 교리 습득과 교리전달의 핵심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요약하자면, 멜란히톤의 이상적 성직자는 휴머니즘에 정통해야만 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선물인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보다 찬란한 것은 없다”<sup>54)</sup>라는 그의 견해는 실로 모든 루터파 성직자들이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할 좌우명이었다. 멜란히톤은 이러한 자신의 이상을 대학 커리큘럼의 개편을 통하여 구현하였다.

### III. 理想의 具現: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 개편

멜란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과과정 개편을 시도하기 이전 거기에는 그것을 가능케한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2년에 걸친 장기간의 숙고후 대학의 설립자이자 후원자인 選帝侯 현명공 프리드리히 (Kurfürst Friedrich der Weise)는 루터와 일부 교수들의 주창한 교과과정 개혁을 1518년에 승인하였던 것이다.<sup>55)</sup> 1518년의 개편은 대학 설립초기부터 점진적으로 조성되어 온 휴머니즘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1518년 이전의 비텐베르크 대학은 그 공식적 교과과정에 있어서 다

54) CR, 11, p. 398: “. . .haec admiranda dona Dei. . . humanitatis studia quibus post Christi Evangelium hic orbis nihil praeclarius habet.”

55) Walter Friedensburg, *Geschichte der Universität Wittenberg* (Halle, 1917), pp. 107-115; Schwiebert, *Luther and His Times*, op. cit., pp. 296-298; Max Steinmetz, “Die Universität Wittenberg und der Humanismus (1502-1521),” *450 Jahre 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ed. by Leo Stern (Halle, 1952), 1, pp. 125-127.

른 독일대학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휴머니즘은 여전히 학문세계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스콜라 학자들의 교수방법은 온전히 장려되어야 한다”는 1508년의 정관은 그 커리큘럼에 명백히 반영되어 있었다.<sup>56)</sup> 일부 개혁성향의 교수들이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제시한 휴머니즘은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의 보조적 위치에 만족해야 했고 그것의 대체세력으로 부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518년 개편의 실질적 원동력은 휴머니스트가 아닌 루터였다. 비록 그는 ‘eloquentia’와 고전문화의 추구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종교적 목적으로 — 특히 원어를 통한 성경연구를 위해서 — 동료교수들에게 휴머니즘의 배양을 독려해왔다.<sup>57)</sup> 그의 노력은 1517년 봄에 이르러 결실을 보게 된다. 스콜라 신학이 대학내에서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5월 18일 그는 에르푸르트의 휴머니스트이자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의 동료 수도승이었던 랑 (Johannes Lang)에게 喜報를 보냈다.

하나님의 役事 덕택에 우리의 신학과 성 어거스틴[의 신학]이 우리 대학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퍼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퇴락하고 있고 머지 않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거집》강의들이 무시되고 있으니 놀랄만 한 일이다. 이 신학, 즉 성경과 어거스틴. . .에 대한 강의를 제안하지 않는 자는 수강자를 기대할 수 없다<sup>58)</sup>

56) *Urkundenbuch der Universität Wittenberg*, 이하 *UBUW*, ed. by Walter Friedensburg (Magdeburg, 1926), 1, p. 20: “Vias scholasticorum doctorum absque differencia erigimus.” 초기 비텐베르크 대학에 존재한 휴머니즘의 실상에 관해서는 박준철, 〈중세말 독일의 반성직주의와 대학교육〉, 《역사학보》, 149 (1996), pp. 157–158 과 거기에 인용된 문헌들 참조.

57) Karl Bauer, *Die Wittenberger Universitäts Theologie und die Anfänge der deutschen Reformation* (Tübingen, 1928), pp. 30–63; Ernest Schwiebert, “New Groups and Ideas at the University of Wittenberg,”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49 (1958), pp. 67–72; Helmar Junghans, “Der Einfluss des Humanismus,” op. cit., pp. 94–101.

58) *WA Br*, 1, no. 41, p. 99: “Theologia nostra et S. Augustinus prospere precedunt et regnant in nostra universitate Deo operante. Aristoteles descendit paulatim inclinatus ad ruinam prope futuram sempiternam. Mire fastidiuntur lectiones sententiarum, nec est, ut quis sibi auditores sperare possit, nisi theologiam hanc, id est bibiam aut S. Augustinum. . . velit profiteri.”

약 일년후 루터는 교양학부 커리큘럼 개편의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초안은 분실되었다. 그러나 1518년 5월 11일 랑에게 보낸 루터의 편지에서 그가 제안한 개편내용을 엿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두개 혹은 세개의 언어”와 로마의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 (Marcus Quintilianus)에 대한 과목을 신설하는 대신 중세 사변적 논리학의 총아인 페트루스 (Petrus Hispanus)의 《논리학 핵심》(《Summulae Logicales》)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쓸모 없는 강의”의 폐지를 “가까운 장래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9)</sup>

1518년 채택된 교양학부의 강의계획서는 랑에게 보낸 편지에 시사된 루터의 초안이 상당부분 실현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물리학〉 그리고 〈형이상학〉을 다루는 과목들은 유지되었으나 《논리학 핵심》강의는 폐지되었다. 교양학부의 예비학교인 ‘pedagogium’에서는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두명의 “박식한 석사들”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강의하도록 규정되었다. 게다가 루터의 예상대로 퀸틸리아누스에 대한 강의가 신설되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최초로 수사학교육이 이루어졌다. 비록 전공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강의계획서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의 위상이 상당히 신장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계획서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담당할 교수의 채용을 명문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8월에 멜란히톤이 그리스어 담당교수로 부임하였다.<sup>60)</sup> 이 1518년의 개

59) *Ibid.*, no 64, p. 155: “studium nostrum ea proficit, ut futurum essen propediem expectemus, nos habere lectiones utriusque, imo triplicis linquae, Plinii, mathematicarum, Quintiliani, et nonnullas alias optimas, reiectis ineptis illis Petei Hispani, Tartareti, Aristotelis lectionibus.”

60) “Neu eingerichtete Lektionen an der Universität,” *UBUW*, 1, no. 64, pp. 85–86: “Logica Aristotelis textualiter secundum novam translationem durch einen sonderlichen magistrum. Physicam und metaphysicam Aristotelis textualiter secundum novam translationem. Aristotelem de animalibus. Quintilianum. Weiter seint zwen gelarte magistri verordent ein pedagogium zu verwalten und die knaben in den dreien vornemsten sprachen, der lateinischen, kriegchischen und jüdischen, in grammatica und anderm guten anfang der schrift zu unterweisen. Mer wirt man durch gotliche fugung in kurz in vilberurter universiteth zu Wittenberg ein gelarten man verorden, der in greca lingua lesen soll, und ein gelarten man, der in hebraica lin-

편은 멜란히톤이 차후 종교개혁의 핵심일원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그의 커리큘럼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비텐베르크 대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또한 1518년의 개편은 휴머니즘이 독일사회에 정착화되는 과정의 메카니즘을 예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휴머니스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왔던 휴머니즘이 종교개혁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에서 스킨라 철학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제 멜란히톤의 커리큘럼 개편에 의해 저을추는 점차 휴머니즘으로 기울게 된다.

멜란히톤의 비텐베르크 교과과정의 개편은 1520년 교양학부의 새로운 구성을 위해 그가 작성한 초안과 함께 시작한다.<sup>61)</sup> 그는 교양학부를 각각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수학, 키케로의 《수사학》(《Rhetorica》), 베르길리우스 (Publius Vergilius)와 퀸틸리아누스, 로마사, 그리고 《자연의 역사》의 저자인 플리니우스 (Marcus Plinius)를 담당하는 열명의 교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sup>62)</sup> 이 1520년 개편초안은 1518년의 강의계획에 비교해 볼 때 휴머니즘이 대학내 진입보되는 발판을 구축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폐지되었고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강의가 ‘pedagogium’을 떠나 교양학부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승격되었다. 퀸틸리아누스를 가르쳤던 기존의 수사학 과

---

gua lesen soll.” 1508년 정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구 논리학, 《논리학 핵심》, 교재가 분명치 않은 문법과목을 학사과목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물리학》과 《형이상학》은 석사과정의 필수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See *Ibid.*, p. 54: “preterea suorum preceptorum litteris fidem faciant baccalaureandi, se audivisse Petrum Hispanum, novam et veterem logicam Aristotelis, priorum, posteriorum analyticorum, topicorum quator, elencorum, necnon grammaticam.” (학사과정); “. . . magistrandi vero novam et veterem logicam, libros phisicorum, de anima, de celo et mundo, de generacione et corrupcione, metheorum, parva naturalia, ethicorum, metaphisicam, necnon mathematicam.” (석사과정)

- 61) Hartfelder, *Philipp Melanchthon*, op. cit., pp. 508--511; Friedensburg, *Geschichte der Universität*, op. cit., pp. 130--131. Hartfelder가 바이마르 국립문서보관서에서 발견한 이 초안은 CR과 UBW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62) Hartfelder, op. cit., p. 509. 멜란히톤은 이 10개 과목에 적합한 교수의 이름까지 나열하고 있다. (pp. 509--510 참조)

목에 키케로의 《수사학》이 추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비텐베르크 대학사상 최초로 역사학과 詩가 정규과목에 포함되었다. 비록 멜란히톤의 초안은 대학 재정상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하였지만<sup>63)</sup> 휴머니즘을 확산시키려는 그의 의도는 여기에 명백히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멜란히톤은 1523년에 그동안 학생들의 논리적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학위취득의 한 필수과정으로 요구된 토론수업 (disputatio)을 폐지시키고 그 대신 수사학적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연설 (declamatio)을 신설하였다.<sup>64)</sup> 이후 1520년대에는 주목할 만한 개편이 없었다. 추측컨대, 그 이유는 1520년대 중·후반에 농민전쟁, 재세레파의 등장으로 개혁운동이 과격·급진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수가 급감<sup>65)</sup>하여 비텐베르크 대학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고 따라서 학사행정의 개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제후들도 1520년대에 들어와 냉각화된 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노골적 지원을 꺼릴 수 밖에 없었다.<sup>66)</sup>

1530년대에 이르러 첨예했던 위기국면이 지나가자 멜란히톤은 대학개혁을 재개하였다. 1533년 그는 신학부의 교과과정을 새로이 개편하였다.<sup>67)</sup> 1533년 정관은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 교과과정의 변화추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랑에게 보낸 루터의 편지에 드러나듯이, 종교개혁의 도래와 함께 이 대학의 신학교육은 성서지상주의에 입각하여 성경중심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비텐베르크의 문서철에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1533년 이전까지의 신학부 커리큘럼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1533년의 정관은 종교개혁 이후 비텐베르크의 신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63) *Ibid.*, pp. 510-511.

64) *UBUW*, 1, no. 131, pp. 128-129.

65)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증가해 온 학생등록수는 1520년대 초기 안정수치를 보이는 반면 152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급감하였다. 245명 (1521년); 285 (1522); 198 (1523); 170 (1524); 201 (1525); 76 (1526); 73 (1527). 설립년도인 1502년부터 1600년까지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수는 1526년과 1527년 이외에는 단 한번도 100명을 하회한 적이 없다. Paulsen, *Geschichte des gelehrten Unterrichts*, op. cit., 2, appendix II, pp. 692-693.

66) Engelland, "Melanchthons Bedeutung," op. cit., pp. 29-30.

67) "Statuta collegii facultatis theologiae in academia Wittenbergensi scripta anno 1533," *UBUW*, 1, no. 171, pp. 154-158.



를 보여주는 최초의 공식적 문서인 것이다.

신학부의 교수진은 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비텐베르크 혹은 타 대학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야만 했다.<sup>68)</sup> 그러한 멜란히톤은 타 대학의 학위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즉, 만약 신학부의 교수직을 지원한 자가 타 대학 학위의 소유자일 경우 그의 지식과 사상이 공개심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sup>69)</sup> 종교개혁 이전과는 달리<sup>70)</sup> 신학부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교재는 단지 성경뿐이다.<sup>71)</sup> 멜란히톤은 그 중 로마서, 요한복음, 시편, 창세기, 이사야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책들이 기독교 교리의 주요주제를 가장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sup>72)</sup> 한편 그는 교수들은 그들의 수업에서 장황한 논리를 피하고 “단순한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sup>73)</sup>

이어서 멜란히톤은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여러 단계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학사 (Biblicus)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에 진념해야 하며, 그 다음 상위학위에 해당하는 ‘Sententiarius’<sup>74)</sup>

68) *Ibid.*, p. 154: “Sint praelectores certi et perpetui quatuor, qui sint subjecti rectori academiae. . . et habeant testimonium publicum gradus doctorus vel ab hac academia vel ab alia collatum.”

69) *Ibid.*, pp. 154–155: “Siquis autem in alia academia fuerit ornatus gradu doctoratus, non recipiatur in hoc collegium nisi prius explorata sit ejus eruditio et sententia in publica disputatione.”

70) 비텐베르크를 포함한 중세말 독일대학 신학부의 교과과정은 박준철, 〈중세말 독일의 반성직주의와 대학교육〉, 앞의 논문, pp. 160–165에 개략적으로 소개되었다.

71) *UBUW*, 1, p. 155: “Semper enarretur ab uno ex his liber aliquis Veteris Testamenti, ab altero vero liber aliquis Novi Testamenti.”

72) *Ibid.*: “Ac saepissime repetantur enarratio epistolae Pauli ad Romanos, evangelii Johannis, psalmodum, genesis, Esaiae. nam hi libri maxime erudire studiosos de praecipuis locis doctrinae christiane possunt.”

73) *Ibid.*: “Et in enarrationibus simplex veritas candide et recte. . . explicetur.”

74) ‘Sententiarius’라는 용어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Petrus Lombardus의 《전거집》(《Sentences》)을 다루는 과목들을 이수한 자 또는 그의 공식적 학위를 의미한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는 이미 - 정확한 연도는 알수 없지만 - 《전거집》강좌가 폐지되었고 1533년 정관은 이를 확인해 준다. 따라서 적어도 1533년 이후의 ‘Sententiarius’는 《전거집》이 아니라 본문에서

는 바울서신에 나타난 교리를 숙지하고 학장과 신학부 교수들 앞에서 시편과 예언서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다.<sup>75)</sup> ‘Sententarius’와 박사학위의 중간에 해당하는 ‘Licentiatus’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신학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 동안 예언서와 사도들의 서신서를 가르치는 과목들의 수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sup>76)</sup>

1533년 정관에 규정된 신학부의 커리큘럼에서는 스킨라 신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비텐베르크의 신학교육은 멜란히톤의 이상과 부합되게 되었다. 사변적 논리학에 근거한 신학주석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성경이 유일한 교재로 채택되었다. ‘loci’ 교수법에 대한 그의 신뢰도 표출되었다. 교수들은 “단순한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주요주체들”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했다. 달리 말하자면, 1533년 부터 비텐베르크의 신학부 학생들은 종교개혁의 성서지상주의와 휴머니즘의 교수기법이 융화된 커리큘럼하에서 학습하게 된 것이다.

삼년후인 1536에는 4개 학부 — 교양학부, 법학부, 의학부, 신학부 — 의 커리큘럼이 모두 개편되었다. ‘Fundationsurkunde’라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1536년 5월 5일 채택된 이 정관은 대학의 모든 행정과 학사업무를 새로이 규정하였다.<sup>77)</sup> 실현되지 못한 1520년 개편계획안이 16년 후에 비로소 결실을 보게되었다. 1520년의 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양학부는 10명의 교수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일주일에 나흘 — 월, 화, 목, 금 —, 하루에 한 시간씩 강의하였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논리학, 詩, 수사학 과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역사학 대신 또다른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인 윤리학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플라니우스의 《자연의 역사》과목은 신설되지 않은 한편 수학담당 교수가 두명으로 증원되었다. 라틴어 담당교수는 문법이외에 로마의 극작가인 테렌티우스 (Publius Terentius)를 가르쳐야 했다.<sup>78)</sup>

---

설명된대로 바울서신, 시편, 예언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75) *UBUW*, 1, p. 156.

76) *Ibid.*: “Nemo admittatur ad gradum doctoratus nisi sexennio audierit enarrationes scripturae propheticae et apostolicae a doctoribus ordinariis.”

77) “Kurfürst Johann Friedrichs von Sachsen Fundationsurkunde für die Universität Wittenberg,” *Ibid.*, no. 193, pp. 172–184.

위에서 드러나듯이,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는 이제 교양학부 커리큘럼을 장악하게 되었다. 스콜라 철학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논리학 과목이 존속하였지만 논리학을 담당할 교수는 수사학교수와 더불어 주 2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공개연설 기법을 가르쳐야 했다.<sup>79)</sup> 멜란히톤은 이 정관이 채택된 지 3개월 후 교양학부 학장에게 편지하기를, “잘 알려져 있듯이 품위있는 라틴어 연설은 그 형식에 대한 훈련없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개연설 과목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sup>80)</sup> 이 점에서 비텐베르크 학생들이 학습한 논리학은 중세의 사변적 논리학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수사학적 논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개연설은 학생들만이 연마해야 할 과목이 아니었다. 수사학, 그리스어, 테렌티우스를 담당할 교수들은 일년에 한번씩 공개연설을 하도록 요구되었다.<sup>81)</sup> 이 규정은 교수들로 하여금 공개연설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사고를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기법을 숙달시키고 또한 학생들의 공개연설의 지도에 필요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멜란히톤의 비텐베르크대학 커리큘럼 개편은 1546년 정관<sup>82)</sup>에 의해 완성되었다. 교양학부에 개설된 과목은 1536년 정관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정

78) *Ibid.*, p. 177: “so wollen und ordenen wir, das wochentlich vier tag, als montnags, dinstags, dornstags, und freitags, und ides tags ain stunde, nachbestimte lectiones mit vleis und ungesembt gelesen und gehalten sollen werden, nemlich: aine in hebraischer und die andere in krigischer sprachen, die dritte in poetica, die virde in Therencio und grammatica, wie bis anher. auch sollen zur lection teglich gelesen werden durch zwene legenten in matematica. so sollen zwene lectores sein: der aine sol teglich lesen in dialectica, der ander in retorica. . . die neunde lection soll teglich sein in phisica, die zehende morali philosophia.”

79) *Ibid.*: “. . . uber das solln auch dieselben [논리학과 수사학 담당교수들] zwene wochentlich declamacion halten.”

80) *CR*, 3, p. 190: “Illud constat puritatem latini sermonis sine styli exercitio non posse conservari.”

81) *UBUW*, 1, p. 178: “die rhetores, der grecus lector und lector Therencii sollen vorpflicht sein die declamationes zu bestellen und nach ainander sol ainer im jar ainmal declamiren.”

82) *CR*, 10, pp. 992–1024; *UBUW*, 1, no. 271–273, pp. 255–277.

관의 일부 조항은 성직자교육에 대한 멜란히톤의 집요한 관심을 보여준다. 먼저, 히브리어 담당교수는 구약성경을 교재로 삼아 히브리어 문법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83)</sup> 한편 그리스어 문법교재에는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테오크리투스, 데모스테네스 등의 작품뿐만 아니라 바울서신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sup>84)</sup> 여기서 멜란히톤이 추구한 바는 “[그리스]어학 지식이 사도의 서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sup>85)</sup> 그의 의도대로라면, 교양학부에서 성경을 교재로 하여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배운 자는 신학부에서 보다 손쉽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당시 성직자들이 이수한 대학교육이 대부분 교양학부과정에 그친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조항들은 미래의 성직자에게 성서를 원어적으로 접근하는 경험을 교양학부에서 갖도록 하려는 배려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아 물론 이 조항들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를 성직자교육에 이용하려는 멜란히톤의 의지를 완전히 대변하고 있다.

신학부의 정관 역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가 교리연구에 필수적이라는 멜란히톤의 일관된 믿음을 시사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각별한 주목이 요구되는 것은, 비텐베르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과목이 신학부에도 설강되었다는 점이다.<sup>86)</sup> 멜란히톤은 어학학습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더 나아가 오류없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복음의 목회를 위해서 언어라는 선물을 교회에 주셨다”<sup>87)</sup>라는 그의 표현은 휴머니즘을 대

83) *CR*, p. 1010; *UBUW*, p. 267: “Nonus lector ebraicae linguae, qui grammaticen ebraicam subinde repeat et adjungat hos libros Veteris Testamenti: genesin, psalmos, proverbia Salomonis, Esaiam, Jonam, Danielelem.”

84) *Ibid.*: “Decimus lector graecae linguae, qui subinde repetat grammaticen graecam et hos scriptores: Homerum, Hesiodum, Euripidem, Sophoclem, Theocritum, aliquas Demosthenis orationes, aliquem ex graecis historicis. interdum vero misceat aliquam Pauli epistolam. . .”

85) *Ibid.*: “. . . ut videant adolescentes ad intelligendum sermonem apostolorum prodesse linguae. . . cognitionem.”

86) *CR*, p. 1007; *UBUW*, p. 264: “Semper etiam aliqui doctores in hoc collegio et in hoc numero quator lectorum ad latinam linguam adjungant ebraicae et graecae linguae studia. . .”

학교육의 지배적 정신으로 전환시킨 그의 커리큘럼 개편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교리의 교수기법을 언급한 조항에도 그의 휴머니즘이 시사되어 있다. 멜란히톤은 교수들에게 강의와 토론에 있어서 결코 불분명한 견해를 제시하거나 논쟁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sup>87)</sup>

멜란히톤의 비텐베르크 대학 개편은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건설적 유대를 의미한다. 1502년 설립된 이래 종교개혁이 도래할 때까지 비텐베르크 대학은 학문추구 양태에 있어서 전형적인 중세의 교육기관이었다. 다른 독일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논리학은 우선적 학습대상이자 진리탐구의 기본적인 도구로서 비텐베르크의 교육체제를 주도하였다. 일부 진보적 인사들은 휴머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대세를 바꾸기에는 스콜라 철학에 대한 뿌리깊은 신뢰가 너무 강하였다. 그러나 루터의 성서휴머니즘이 교회개혁으로 이어지면서 그 핵심부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육방향은 급선회를 하게 된다. 1518년의 개편은 차후 비텐베르크의 커리큘럼이 나아가야 할 길을 터 놓았다. 1520년대부터 멜란히톤에 의해 전개된 일련의 커리큘럼 개편은 학문의 보편질서를 지배해 온 스콜라 철학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의 교과과정 혁신은 휴머니즘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원동력과 추진력은 성직자교육의 質的 개선을 통한 교회개혁의 완수라는 보다 급박하고 절실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멜란히톤의 커리큘럼 개편이 그가 종교개혁가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개시되었다는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와 ‘loci’ 교수법이었다. 결과적으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는 비텐베르크 교양학부를 장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부에서도 학습되어 그 절정기를 구가하게 된다. 한편 미래의 성직자들은 사변적 논리가 아닌 어학과 간단명료한 교수기법을 바탕으로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습득하고 수사학 훈련을 통하여 그 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87) *Ibid.*: “Dedit enim deus donum linguarum Ecclesiae propter ministerium Evangelii.”

88) *CR*, p. 1004; *UBUW*, p. 263: “Nec ludant Professores ambiguous involucris, nec collegas vel crimentur, vel sugillent in ullis publicis praelectionibus aut disputationibus.”

## IV. 결 론

1518년 3월 11일 루터는 자신이 초안한 커리큘럼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독일의 다른 대학들도 비텐베르크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sup>89)</sup> 그의 예견은 적중하였다. 많은 대학들은 해당지역이 루터파에 편입되자마자 멜란히톤에게 커리큘럼 개편을 의뢰하였고 그는 비텐베르크를 모델로 삼아 휴머니즘을 각 대학에 제도적으로 확립시켰다.<sup>90)</sup> 비텐베르크를 비롯한 타 대학의 커리큘럼 개편의 동기, 과정, 결과에 표출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독일사회에 뿌리내리는 데에 상호 결정적 기여를 한 호혜적 관계이다. 모엘러는 “휴머니즘이 없었다면 종교개혁도 없었다”<sup>91)</sup>라며 종교개혁 발발을 전후한 휴머니스트들의 공헌을 역설하였다. 필자는 모엘러의 결론이 종교개혁의 정착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16세기 후반에도 반성직주의는 독일의 루터파 교구에 만연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들에 대한 교구민들의 불만과 저항은 중세말과는 달리 더 이상 성직자의 교육수준이나 교육능력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sup>92)</sup> 대다수의 성직자가 대학교육을 이수하였고 개편된 커리큘럼은 그들을 논리에 얽매이고 분석에 탐닉하는 ‘스콜라’가 아니라 핵심적 교리를 대부분 문맹인 교구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현실적 목회자로 전환시켰다. 그들은 휴머니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자질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사회의 저변에 확산시키는 첩병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멜란히톤의 말대로 휴머니즘은 종교개혁에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다.

종교개혁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휴머니즘에 제공하였다. 휴머니즘이 독일대학에 그 모습을 드러낸 1450경 이래로<sup>93)</sup> 많은 휴머니스트들은 교육개

89) *WA Br*, 1, no. 63, p. 153.

90) 필자의 학위논문, “Philip Melancthon's Reform of German Universities,” *op. cit.*, pp. 137-190 참조.

91) Bernd Moeller, “The German Humanists and the Beginnings of the Reformation,” *op. cit.*, p. 36.

92) Gerald Strauss, “Local Anticlericalism in Reformation Germany,” *Anticlericalism in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ed. by Peter D. Dykema and Heiko A. Oberman (Leiden, 1990), pp. 625-637.

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논리학은 학문중의 학문이며 과학중의 과학'이라는 전통적 믿음은 휴머니스트들의 교육관을 압도하였다. 그들의 열망은 종교개혁을 통해 구현되었다. 무엇보다도 논리학으로 포장되고 난해한 이론으로 채색된 성경연구가 거부되면서 어학교육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설교가 목회자의 주요임무로 정립되면서 수사학의 중요성은 가중되었다. 결국 휴머니즘은 종교개혁에 힘입어 독일대학의 교육이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교사, 성직자, 공직자 등의 사회의 지도층으로 활동하게 될 그 졸업생들의 삶과 그들이 이끄는 사회와 문화의 한 모습으로 정착하게 된다. 그동안 학계를 괴롭혀 온 '수수께끼'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

93) Lewis W. Spitz, "The Course of German Humanism," *Itinerarium Italicum: The Profile of the Italian Renaissance in the Mirror of Its European Transformation*, ed. by Heiko A. Oberman and Thomas A. Brady, Jr. (Leiden, 1975), pp. 371-436.